

고규홍의 '나무 생각'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무가 있다

우리네 시골 마을에서 가장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나무가 감나무다. 마을마다 차이나 있었지만, 사람의 마을 어디라도 대개는 집집마다 뒤란에 감나무 한 그루씩 심어 키웠다. 감나무를 키우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열매인 감을 따 먹기 위해서가 가장 큰 목적이겠지만, 그밖의 이유도 적지 않다. 감나무는 뱀이 무척 싫어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다. 뒤란 장독대에 드러내어야 하는 아내들에게 뱀은 혐오와 질겁의 대상이다. 그래서 감나무 한 그루를 뒤란의 장독대 곁에 심었다. 감나무 때문에 뱀이 오지 않는다고 믿은 아내들은 그렇게 해서 장독대를 편안하게 들락일 수 있었다.

라는 얘기가.

경남 의령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감나무 한 그루가 있다. 무려 450년 넘게 살아온 이 감나무는 높이가 20m나 되고, 가슴 높이가 줄기 둘레는 4m 가까이 된다. 2008년에 우리나라 감나무 중 유일하게 천연기념물 제492호로 지정됐다.

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자 여느 천연기념물 나무들처럼 주변에 울타리가 쳐지고, 사람들은 나무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됐다. 때마다 거름을 주고, 병충해 방지를 위해 세심하게 배려했지만 안타깝게도 나무는 시간이 흐를수록 쇠잔해 갔다. 아직은 우리나라의 여느 감나무에 비해 규모가 떨어지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쇠잔해지는 나무의 상태가 아쉽기만 하다.

긴 세월을 살아온 나무가 수명을 다해 노쇠 현상을 보이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감나무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 나무인데, 울타리를 쳐 놓고 사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니, 약해 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다. 자연 안에서 사람이 더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 평화로운 공존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밀착해야 할 때도 있고, 거리 두기가 필요할 때도 있다. 지나치게 가까워져서도, 멀어져서도 안 된다. 미묘한 조화가 필요하다. 그 자리를 찾아내는 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미생물과의 싸움으로 온 나라가 정지 상태인 이즈음에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의 사람살이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은 감나무의 감을 따 먹지는 않겠지만 자연이 베푸는 혜택을 대가 없이 받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자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자연을 몰아내는 쪽으로만 일관해 왔다.

미세한 티끌도 허용하지 않았고, 이를 모를 생명체와의 공존은 극도로 혐오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먼지 한 톨까지 빨아들이는 청소기를 만들었고, 음용수에는 미세한 침전물도 허용하지 않았다. 미생물이 숨 쉬며 살아가야 할

땅은 어떤 생명체도 살아갈 수 없는 단단한 콘크리트로 덮였다. 보도블록 틈에서 솟아오른 미미한 풀꽃들은 여지없이 깎아내려 버려야 했다.

온갖 항생제를 만들어 미생물을 살해하기도 했다. 사람의 마을에서 모든 자연을 철저히 몰아낸 것이다. 한 치의 틈도 자연에 허용하지 않았다. 그럴수록 미생물들은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어서라도 애먼글면 살아남았다. 생명 가진 것들의 본능이다. 급기야 사람들은 미생물을 퇴치할 또 다른 퇴치제를 찾아내는 데에 골몰해야 했다. 자연과의 교호 과정을 차단하는 데에는 갈수록 더 많은 시간이 들었고, 그 사이에 변형된 미생물들은 숙주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자리를 찾아내려고 미생물이 선택한 생존 전략일 것이다.

사람도, 나무도, 미생물도 모두 자연의 일부로, 조화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체임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다. 자연의 모든 생명체와의 평화로운 공존이 절실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자연이 있어야 한다. 그게 지금 우리가 찾아내야 할 거리 두기의 진실이다. <나무 칼럼니스트>

社說

호남 석권 민주당 오만 버리고 민심 부응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완벽한 승리였다. 어제 실시된 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8석과 전남 10석을 싹쓸이했다. 전북(전제 10석)에서도 9석을 차지하는 등 호남 지역에서 압승을 거뒀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광주·전남 18석 가운데 국민의당에 16석을 내주고 단 한 석을 얻었는데 그쳤으나 이번에 완전한 정치 세력 교체에 이룬 것이다. 3선 이상 지역 중진 의원들은 모두 국회 진입에 실패한 반면 초선 의원 13명이 대거 당선되면서 세대교체가 현실화된 것도 이번 선거의 특징이다.

전국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 안정적 국정 운영은 물론 정권 재창출을 위한 준비 작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미래통합당은 영남권을 석권했지만 수도권에서 부진 등으로 원내 1당 탈환에 실패했다.

이번 호남 지역 선거 결과는 지역 유권자들이 4년 전 총선에서 '녹색 돌풍'을 뒷받침하며 제3당 시대를 열어 주었지만 분열을 거듭하며 정치적 존재감과 미래 비전

을 제시하지 못한 옛 국민의당 출신 민생당 및 무소속 의원들에 대해 책임을 묻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바탕으로 내 번째 민주정부 창출을 이룬 내 줄 것을 바라는 기대를 강하게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새로 선출된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에서 호남 정치를 복원해 낼 수 있을지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많다. 대부분 초·재선인 데다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 현안을 챙기는 것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 독점 구도가 다시 형성되면서 과거 되풀이했던 일당 체제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따라서 광주·전남 당선자들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 발전을 위해 광주형 일지리와 광주 군 공항 이전, 방사광 가속기 유치 등 선진적인 현안 과제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도 전심전력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6주기 그날을 다시 기억하며

최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일부 여당 후보들의 막말이 문제가 됐다.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았던 차명진 후보는 세월호 유가족 관련 막말로 후보 자격을 상실했다가 징계 절차의 하자로 인한 치료만이 남아 있는 시야와 시력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길이며 잘 조절된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의 결과는 시신경과 시야의 결손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시신경이 지속적으로 손상되지 않는다면 안압이 설령 높다고 하더라도 녹내장은 어느 정도 조절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기에 발견되면 조절은 더 용이하다. 시신경의 손상이 생기기 전 녹내장을 발견했다면, 시신경의 손상을 아주 더디게 해 나아가는 동안 큰 시야 없이 지낼 수도 있다. 일단 손상된 시신경은 재생이 불가능하므로 좁아진 시야와 나빠진 시력은 회복이 어렵다.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더라도 40세 이후에는 1년에 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안과를 찾아 진료받는 것이 '슬기로운' 방법이다. 녹내장 발견 당시의 시력과 시야를 현상 유지하는 방법이 최선의 치료이므로 녹내장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은당 차원에서 통합을 약속한 반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등 6개 정당은 관련 질서에서 응답하지 않았다.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제시한 5대 정책 과제는 세월호 관련 대통령기록 보관,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 조사 기간 확보 및 인력 보강, 희생된 민간 잠수부와 기간제교사 지원을 위한 '감관홍보' 입법, 국민안전법 법제화, 피해자 불법 사찰 및 혐오·모독 처벌 강화 등이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6주기가 되는 날이다. 그러나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그동안 요구해 온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세월호 약속 운동'에 적극 동참해 필요한 법을 통과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기자들은 왜 그렇게 술을 잘 마십니까?" 공무원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다. 예외는 있었으나 과거 많은 기자들은 필요에 따라 정보를 얻어야 할 상대방과 과음을 하곤 했다. 취한 상대방의 빈틈을 노려 시의적절한 물음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어 내는 것이 기자의 능력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운 좋게 술자리에서 중요한 정보라도 얻게 되면, 이를 기억하기 위해 화장실 같은 곳에서 수첩에 적기도 했었다.

세 치 혀

지난 2003년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는 파격적인 내 용과 영상으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 있다. 15년간 영문도 모르고 갇혀 지낸 오대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부인 살해범이 되고, 최면에 걸려 근친상간도 저지른다. 나중에 자신이 고교 시절, 무심코 친구에게 던진 말로 인해 친누나가 자살하는 등 공적을 겪은 이수진의 복수심을 알게 되자 스스로 자신의 혀를 가위로 자르며 속죄하는 장면은 압권이었다. 열라대왕은 저승에서 죽은 이의 생전 행동을 심판해 상벌을 주는 지옥의 왕이

다. 인도 신화나 불교·도교 등이 묘하게 섞이면서 재판관인 열 명의 왕 중 다섯 번째 왕으로 자리 잡았다. 업경대(業鏡臺)를 통해 죄상을 파악한 대왕은 죄인의 혀를 집게로 뽑는 발설(拔舌)의 형벌을 내리기도 했다. 인간이 저지른 대부분의 죄가 세 치 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이즘은 대중을 상대로 언제든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전할 수 있는 SNS까지 있어 시도 때도 없이 설화(舌禍)가 반복되고 있다. 정치인이

나 방송인 등은 물론 일반인까지도 곧바로 '잘못이 드러나는' 말을 너무 쉽게 내뱉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생기는 불필요한 논란은 갈등과 마찰, 스트레스 등으로 이어진다. 이번 4·15 총선에서도 공약은 간데없이 '거친 말'들이 오갔고,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 오프라인에서는 온라인에서든, 실전 없는 허황된 말이나 결단 번지르르한 그럴듯한 말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 묘안은 없는 것일까. 늘 말만 앞서는 '말쟁이'들은 이제 그만 보고 싶다. /유현성 정치부 부장 chadol@

의료칼럼

슬기로운 녹내장 환자 생활



조형진 보리안과병원 원장

자들을 주로 진료하고 있다. 많은 안과 질환이 그러하듯, 이 질환 역시 초기에는 발병 여부를 발견하기 어렵고, 시야가 좁아져 병원을 방문했을 때에는 이미 녹내장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 황반 변성, 당뇨 망막증과 함께 실명을 일으키는 3대 질환 중 하나인 녹내장. 발병하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녹내장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녹내장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시신경이 약해지면서 점점 시야가 좁아지다가 결국 실명에 이르는 병이다. 시신경이 손상되는 이유는 안압이 상승해 시신경을 눌러 손상되는 것과 시신경 혈류 장애가 생겨 손상이 진행되는 것 두 가지 기전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밖에 녹내장 가족력이 있고 평소 안압이 높거나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및 근시를 가진 사람, 과거 눈에 외상을 입었거나 스테로이드 점안약을 장기간 투여한 경우, 노화가 진행될수록 40세 이후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는 안압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혈류 이상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시신경이 손상을 받기 때문

에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정상 안압은 10~21mmHg으로, 안압이 정상인데도 시신경 장애가 나타나는가 하면 높은 안압인데도 시신경이 잘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사람마다 시신경이 견딜 수 있는 안압이 다르기 때문이다.

녹내장 환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녹내장의 기본 치료 원칙은 '안압을 녹내장이 더 진행되지 않는 정도로 충분히 낮춰주는 것'이다. 안압을 낮춰주는 방법은 약, 레이저, 수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안약이 가장 효과적이다. 녹내장 안약을 사용해 안압을 충분히 낮게 유지하고, 부가적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항산화 효과가 있는 음식을 챙겨서 드시는 것을 권유 드린다. 어두운 곳에서 너무 오랜 시간 있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고, 관악이나 풍선 같은 것을 많이 부는 것은 안압 상승 위험을 높일 수 있고 너무 꼭 목이 끼는 옷이나 넥타이도 좋지 않고 복장은 되도록 목 부분이 편한 것이 좋다. 담배는 꼭 중단하고, 술도 줄여야 한다.

녹내장은 완치될 수 없고 평생 약물,

레이저 치료, 수술 등의 방법으로 안압을 조절해 시신경의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추적 관찰과 적절한 치료만이 남아 있는 시야와 시력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길이며 잘 조절된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녹내장의 결과는 시신경과 시야의 결손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시신경이 지속적으로 손상되지 않는다면 안압이 설령 높다고 하더라도 녹내장은 어느 정도 조절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기에 발견되면 조절은 더 용이하다. 시신경의 손상이 생기기 전 녹내장을 발견했다면, 시신경의 손상을 아주 더디게 해 나아가는 동안 큰 시야 없이 지낼 수도 있다. 일단 손상된 시신경은 재생이 불가능하므로 좁아진 시야와 나빠진 시력은 회복이 어렵다.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더라도 40세 이후에는 1년에 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안과를 찾아 진료받는 것이 '슬기로운' 방법이다. 녹내장 발견 당시의 시력과 시야를 현상 유지하는 방법이 최선의 치료이므로 녹내장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고

온라인 수업과 졸탁동시(啐啄同時)



박선희 조선대 법사회대학 신문방송학과 교수

많은 에피소드가 쏟아져 나왔다.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전체 공개를 택했던 어느 교수는 집단 댓글에 시달렸고, 인터넷에는 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과 네티워킹 때문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곳곳의 부끄러움들을 수면 위로 올려놓았듯이, 온라인 수업이 실시되면서 대학간 인프라 격차, 교수들의 강의 방식, 학생들의 수업 태도 등 교육에도 여러 문제가 있을 이 드러난 것이다.

미디어를 통한 교육은 교육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장을 열어주었다.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교육 역시 방송 강의, 인터넷 강의, 모바일 강의로 변화를 거듭해왔다. 그리고 미디어 강의는 누구에게나 배움 기회를 제공하는 지식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각광받았다. 교육 당국은 온라인 강의를 부추겼고, 인터넷에는 온갖 분야의 명강의들이 넘쳐났으며, 세계 유수 대학은 온라인 강의로 운영되는 해외 캠퍼스를 개설하는 데 관심을 쏟았다.

그러나 온라인 교육이 일정정도 교육 민주주의에는 기여하지만 전통적 교육

방식인 면대면 강의를 대신하지는 못한 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졸탁동시이기 때문이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어미닭과 병아리가 안팎에서 껍질을 찢어야 하듯이 교육은 선생과 제자가 함께 노력해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교육의 본질이 가르치고 배우는 상호 작용 속에서 서로를 성장시키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기본적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소통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 그러하듯 면대면 교육은 가장 충실한 인류의 오래된 교육 방법이다.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지식을 전달하거나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학생들의 표정과 몸짓, 태도와 자세 같은 비언어 반응들이 교수의 강의와 함께 이루어진다.

그런데 온라인 수업에서는 즉각적이고 원활한 상호 작용도, 생생한 소통도 할 수가 없다. 메아리 없는 독백이 모니터 앞에서 이어질 뿐, 질문을 던질 수도, 학생들의 생각을 알 수도 없다. 학생들 역시 모니터에서 나오는 일방적 강의의

수동적으로 들으며 쪽지나 댓글, 이메일 같은 더딘 방식밖에는 달리 반응을 보일 수가 없다. 화상 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일방적인 온라인 강의가 가진 단점을 보완하기는 하지만, 이 역시 각기 다른 공간에 있는 교수와 학생이 작은 화면으로 소통하기에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미디어의 역사는 인간의 오감을 모두 사용한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온전한 소통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미디어 기술도 결국 시간간의 제약이나 권력 관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구현하기 위해 발전해왔다. 온라인 수업을 계기로 미디어를 통하지 않는 교육, '지금 여기'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교육이 어떤 의미인지 곰곰이 새겨보았으면 한다.

더불어 가르침과 배움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역지사지를 경험하기 바란다. 이번 기회에 서로의 존재에 대해, 강의실 수업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된다면, 원활하지 못한 소통으로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을 그나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월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